

## 최익현과 일본 - 일본정부 비판과 항일의병 투쟁\*

박균섭\*\*

### I. 최익현의 삶의 궤적과 일본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1833~1906)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14세 때 양평의 벽계에 은거하던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1792~1868)의 문도가 되었다. 최익현은 이항로의 문하에서 10여 년간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1482~1519) 이래의 애군여애부(愛君如愛父)-우국여우가(憂國如憂家)의 정신을 배웠다. 최익현은 1855년(철종 6) 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장령, 승정원 동부승지 등을 지냈으며, 사직소를 통해 대원군의 정치를 정면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최익현은 여러 대신과 관리들, 그리고 성균관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이 논문은 한국일본근대학회 제44회 국제학술대회 (2022.5.21. On-line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생들의 비난에 직면했으나 고종은 그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호조참판에 임명했다. 1873년(고종 10) 11월 다시 상소하여 앞서의 상소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만동묘(萬東廟) 철폐를 비롯한 대원군의 잘못된 정치를 논박하였다. 이런저런 일을 계기로 대원군의 10년 권력은 물러나고 고종은 친정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소문의 문구가 과격하다는 이유로 삼사(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를 비롯한 대신들의 탄핵으로 국문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1875년(고종 12) 2월에 풀려났다.<sup>1)</sup>

최익현은 '우리 안의 역적(內賊=亂賊=逆賊)과 '우리 밖의 왜적(外賊=夷狄=倭賊)이라는 분류법을 통해, 당시 위기에 처한 국가 문제에 대한 엄밀한 인식과 단호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었다. 1876년(고종 13) 1월 일본과의 통상조약(병자수호조약) 체결이 추진되자 도끼를 들고 궐문 밖에 부복하여 서양 오랑캐가 왜적을 끼고 맹약을 요구하는 이 형국에 절대로 화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sup>2)</sup> 서양 오랑캐에 편승하는 나라 일본은 청나라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그 상소문의 격렬함과 그것이 초래할 민심의 동요를 문제삼아 최익현은 다시 흑산도로 유배되었다.<sup>3)</sup>

최익현은 1879년(고종 16) 흑산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문에 정진했다. 최익현은 흑산도 유배에서 해배된 후 광주 광산의 하남을 찾아 박해량(朴海量)의 부친인 박정현(朴鼎鉉)과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인근의 유림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론을 펼쳤다.<sup>4)</sup> 최익

1) 『勉菴集』, 卷16, 「耽諱頤未癸酉」, 卷20, 「遊漢拏山記」.

2) 『勉菴集』, 卷3, 「持斧伏闕斥和議疏[丙子正月二十二日]」. 최익현이 병자수호조약에 대해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리던 당시 병자수호조약을 지지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그 대표 인물로는 노론 낙론(인물성동론) 계열 박규수의 학통을 계승한 개화파 김윤식, 김홍집,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유길준 등을 들 수 있다.

3) 『勉菴集』, 附錄卷2, 「年譜[丙子年]」. 『勉菴集』, 卷1, 「再入大黑定頓書塾扁其楣曰日新堂有六七冠童朝夕問陳或相鼎之懷」.

4) 『勉菴集』, 附錄卷2, 「年譜[己卯年]」. 박학래 (2020). 면암 최익현의 문인 집단 형성과 전개: 『채미연원록』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4, 141-184. 울주재 박해량(聿修齋 朴海量, 1850~1886)에 대해서는 『勉菴集』, 卷38, 「聿修齋朴君行狀」, 『松沙集』, 卷15, 「聿修齋遺稿序」 참조. 박해량의 「해상일기」(『聿修齋遺稿』, 卷4, 「海上日記」)는 박해량이 1874년부터 1876년에 걸쳐

현은 1895년 시점에서, 1884년(고종 21) 12월 4일(음력 10월 17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해, 인식과 비판을 분명히 하였다. 갑신정변의 핵심은 바로 갑신오적으로 불리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이다. 최익현은 갑신오적에 대해, 조정에서는 그들을 체포하여 처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의 명령을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형국이었다고 그 한심함을 지적하였다.<sup>5)</sup> 갑신오적은 왜인들의 힘을 믿고 준동한 자들이며, 정변을 실패한 뒤에도 왜인들의 보호 아래 그들의 목숨을 보존한 자들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1894년(고종 31) 갑오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국가는 일본군과 연합하여 동학농민군을 비적(匪賊)으로 몰아 학살 작전에 들어갔다. 동학농민군을 비적으로 몰아 섬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익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기 의병 당시 의병장 최익현을 도왔던 임병찬도 동학농민전쟁 당시 낙안군 수로 있으면서 동학교도 수백 명을 잡아 처별하거나 귀순시킨 바 있다. 차후 제국일본·식민권력이 지속되는 동안 비적은 도적떼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항일군을 일컫는 말로 쓰였음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군의 경복궁 침탈 직후, 1차 김홍집내각(1894.6.-1894.11.)에 이어 2차 김홍집내각(1894.12.-1895.7.)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정확히 판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최익현은 1895년(고종 32) 8월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11월에 단발령이 내려진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당시 최익현이 경기도 포천군 내의 양반들을 모아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내부대신 유길준은 순검(巡檢)을 보내 최익현을 서울로 압송·감금하였다.<sup>6)</sup> 1896년 2월 11일, 최

최익현의 유배지 제주도, 최익현의 본가 경기도 가평(현재는 포천), 최익현의 유배지 흑산도로 최익현을 방문하여 성심으로 섬기면서 스승으로 받들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향준 (2022). 노사와 화서의 만남: 박해량의 『해상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145-175 참조.

5) 『勉菴集』, 卷4, 「請誦逆復衣制疏[乙未六月二十六日].」.

6) 『勉菴集』, 卷14, 「擬答俞吉漣[乙未十二月七日].」.

익현은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김홍집, 정병하, 조희연, 유길준)이 붕괴되자 풀려나 향리로 내려갔다. 이때 고종이 각지의 의병을 회유하고 해산시키는 선유대원의 직책을 맡겼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sup>7)</sup>

최익현은 68세 되던 1900년(光武 4)에 정산(定山: 忠南 靑陽郡 木面 松岩里)으로 이사를 하고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렀다. 반일 거두(反日巨頭)로 지목된 최익현은 1905년(광무 9)에 이르러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 의해 체포·감금되었다가 수일 만에 포천으로 압송되었다. 최익현은 다시 서울에 올라와 일본의 간계를 밝히려는 상소를 준비하던 중 다시 일본 헌병대에 체포·감금되었다가 정산으로 압송되었다. 1905년 10월 21일, 최익현은 천추의 치욕인 을사늑약이 불법·강제로 체결되자 11월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한편, 팔도사민을 향해 호소한 3개조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1905년 12월에 충남 노성 궐리사(闕里祠)에서 유생들을 모아 강회를 열고 왜적 배척을 위한 7개조의 서고조약을 결의하였다.<sup>8)</sup>

최익현은 74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처변삼사 중의 한 방법인 의병투쟁에 나서기를 결심하고 1906년 2월에 가묘(家廟)에 결별을 고하고 호남으로 내려가 문인 고석진(高石鎭, 1856~1924)을 통해 전 낙안군수 임병찬(林炳贊, 1851~1916)을 찾아 의거를 준비한 뒤,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 모집을 위한 깃발(義旗)을 걸고 격문(檄文)을 사방에 돌렸다. 1906년 5월 29일에는 일본 정부에 부친 글을 통해 일본이 신의를 저버린 16가지 죄를 따짐과 동시에 여러 고을에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sup>9)</sup>

의병장 최익현의 의병은 정읍, 순창을 거쳐 곡성에서 시위하고 다시 순창으로 회군하였고, 그 과정에서 1906년 6월에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의 공격

7) 『勉菴集』, 卷4, 「宣諭大員命下後陳謝待罪疏[丙申正月十一日]」, 「宣諭大員命下後陳謝待罪疏再疏[丙申正月十六日]」.

8) 『勉菴集』, 卷5, 「請討五賊疏[乙巳十一月三日]」, 「請討五賊疏再疏[乙巳十一月十四日]」, 卷16, 「布告八道土民」, 卷16, 「魯城闕里祠講會時誓告條約」.

9) 『勉菴集』, 卷16, 「寄日本政府[丙午閏四月七日]」, 「倡義檄文」, 「再檄文」.

을 받았다. 하지만 최익현의 의병대를 공격해 오는 적의 대부분은 전주와 남원에서 치출된 진위대(鎭衛隊)였다. 관군·일본군의 의병에 대한 소탕 작전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부르는 구도로 개시된 것이다. 의병장 최익현은 전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최익현은 고석진·임병찬 등 13명의 의사(義士)와 함께 순창 전투현장에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헌병대에 구금되었다. 최익현은 일본군 사령부의 선고로 대마도 이즈하라(嚴原)의 위수영(衛戍營)에 수감되어 왜적이 주는 음식을 전폐하고 단식으로 투쟁하다가 1906년 11월 17일, 74세를 일기로 적지에서 순국하였다.<sup>10)</sup>

한국근대교육사의 판독 과정에서 전기(1차)-중기(2차)-후기(3차) 의병으로 이어졌던 의병투쟁사 연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연구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중기(2차) 의병 투쟁을 그린 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사에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던 말은 당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착이 없이 전개되는 근대화 프로젝트가 나라의 꼴을 얼마나 한심한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엄중히 꾸짖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1)</sup> 중기(2차)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 최익현은 당시 일본 변수에 대한 해석과 처리 문제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다. 최익현은 소위 개화파 지식인들이 한국인의 주체성이 망실된 개화, 자신과 공동체와 국가를 속이고 망치는 개화에 빠졌음을 통렬하게 지적 비판하였다. 최익현과 일본이라는 주제 탐구를 통해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녔던 유학자 최익현은 공동체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어떤 절절한 인식과 강고한 대응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10) 최영희 (1979.12.25.). 면암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1) “모두가 의병...” ‘미스터 선샤인’이 재조명한 1907년. 중앙일보, 2018. 9. 19.

## II. 최익현의 일본정부 인식과 대응

최익현은 1906년 5월 29일, <일본 정부에 보냄>이라는 편지를 통해 일본의 기만과 폭력의 실상에 대해 성토했다.<sup>12)</sup> 핵심은 일본이 신의가 없는 나라라는 것,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일본이 1876년 이래 30여 년 동안 저지른 신의를 저버린 죄를 낱알이 성토했다. 일본은 “조선의 토지와 인민을 침략하지 않고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해치지 않겠다”, “조선은 자주독립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조선은 독립시켜 토지와 주권을 공고히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애초의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흉포한 짓을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자행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과 토지와 주권을 빼앗아 사실상 일본의 노예상태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최익현은 이처럼 일본은 지금 오로지 침탈을 일삼아서, 우리 2천만 동포의 복수심을 일으켜 모두 동쪽을 향해서는 앉지도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지난날에는 조약을 변경하지 않고 영원히 믿고 따라서 서로 편안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 조약을 따르지 않고 서로 편안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는데, 이는 “하늘을 속이고 신을 속이고 천하 모든 나라를 속이는 짓[以欺天欺神而又欺天下列國矣]”이라고 일갈하였다. 최익현은 일본이 신의를 저버린 16개 죄목을 나열했는데, 그 대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1. 1884년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의 난에 우리 황상(皇上)을 강제로 옮기고 우리 재상을 죽였으니, 이것은 신의를 저버린 첫 번째 죄이다.
2. 1894년 오토리 게이스케(大島圭介)의 난에 우리의 궁궐을 분탕질하며 재물을 탈취하고 우리의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을 훼손시키면서 명

12) 『勉菴集』, 卷16, 「寄日本政府[丙午閏四月七日]」.

13) 『勉菴集』, 卷16, 「寄日本政府[丙午閏四月七日]」.

- 칭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킨다고 하는데, 후일 강탈의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두 번째 죄이다.
3. 1895년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변에 우리 국모를 시해하여 만고에 없었던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두둔하기만 일삼고 도망친 적도(賊徒)를 하나도 구속해서 보낸 적이 없으니, 그 대역무도함은 신의를 저버린 정도가 아닌 바, 이것이 세 번째 죄이다.<sup>14)</sup>
  4. 히야시 곤노스케(林權助) 및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우리나라에 주재할 때 협박하고 겁탈한 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으나 그 큰 것만을 들면, 각처에 철도를 부설할 때, 경의철도(京義鐵道)는 처음부터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놓았고, 어장(漁場)·삼포(蔘圃)·광산(鑛山)·항해(航海) 등의 이권에 이르기까지 일국의 큰 재원을 남김 없이 빼앗아갔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네 번째 죄이다.
  5. 군사상 필요하다는 명칭 아래 토지를 강제로 점거하고 인민을 학대하며 무덤을 파고 집을 헐어 버린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으며, 정부에 권고한다는 명칭 아래 우리나라 사람 중에 비루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천거하여 벼슬을 줄 것을 강요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추문이 낭자하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다섯 번째 죄이다.
  6. 철도 부설, 토지 수용, 군법 시행 따위는 전쟁 때에는 혹 군용(軍用)을 빙자하여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도 철도를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토지는 여전히 점거하여 빼앗은 채로 있으며 군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여섯 번째 죄이다.

14) 1895년 10월 8일의 주한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도하에 경복궁을 기습하여 명성황후를 참혹히 살해한 국가적 대변란(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은 일본 내각이 민·관·언 결탁을 통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이었다. 구마모토국권당 출신의 주한일본공사의 기관지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安達謙藏)는 이 국제범죄에 가담·주도한 48명 중 한 사람이며, 을미사변 가담 범죄자 48명 중에 구마모토현 출신이 21명이나 된다. 소위 문명개화론자들이나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던 자들은 위의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 대해 일본 측의 책임을 묻는 언급이 일절 없다[이기석 (2022. 10. 29.). *The Independent*를 통해 보는 조선말 한일관계의 이모저모 한국일본근대학회 제4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43-244.]. 이들은 오히려 조선이 불가능한 독립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민중에게 고통을 주느니 강한 일본과 하나가 되어 공존공영의 길을 걷는 것이 조선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는바, 이러한 논리는 1920년대의 자치론과 참정권 논의를 거쳐 1930~1940년대로 가면서 전형적인 친일담론의 회로에 갇히고 말았다[정중현 (2021). 특별한 형제들: 친일과 항일, 죄의과 우익을 넘나드는 근현대 형제 열전.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9.].

7. 우리나라의 역적 이지용(李址鎔)을 피어 의정서(議定書)를 강제로 만들게 하여 우리 국권을 폐기시켜 놓고, 그 가운데, 대한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고 한 것은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일곱 번째 죄이다.

.....

10. 인부를 강제로 모집하여 소를 부리고 돼지를 몰 듯하여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풀을 베듯이 바로 죽이며 또 어리석은 백성을 피어 모아가다가 멕시코(墨西哥)에 몰래 팔아서 우리 백성의 부자 형제가 원한을 품고도 호소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아 죽게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 번째 죄이다.

.....

최익현은 1884년(고종 21) 12월 4일(음력 10월 17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해, 그 나라를 망치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분명히 하였다. 최익현은 갑신정변을 그 후의 국가적 항방을 가늠하는 심각 중대사건으로 보았다. 최익현의 갑신정변에 대한 논의는 갑신오적으로 불리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었다. 최익현은, 갑신오적에 대해, 도망갔던 역적들이 방자하게 조정에 출입하는데도 이들을 체포하여 난도질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횡포에 휘둘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하였다. 왜적 일본은 갑신오적을 앞세우고 군대를 동원하여 나라를 무너뜨리고 임금을 욕되게 했다면서, 이는 왜적들이 우리에게 사람이 없는 것을 알보았기 때문에 그런 간악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sup>15)</sup>

최익현은 일본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이는 신(信)을 지키고 의(義)를 밝히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익현은 신의를 저버린 일본은 당장 16개 죄목에 대해 통렬히 회개하고, 그 선상에서 통감을 철수하고 고문관과 사령관을 소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6)</sup>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제대

15) 『勉菴集』, 卷4, 「請求逆復衣制疏[乙未六月二十六日]」.

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노정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근대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온전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실상을 비판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익현은 개화-자주-문명-부강의 개념에 대한 재구성 작업이 요청된다고 지적하였다.

최익현은 1895년 시점에서 개화-자주-문명-부강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했지만 이는 적어도 1884년 이래의 최익현의 일관된 관점이 연속된 것이기도 했다. 개화란 무엇인가. 최익현은 개화의 실상에 대한 판독을 통해 개화의 본색을 포착하는 작업에 나섰다. 최익현은 1895년 시점에서 말하기를, 소위 개화를 입에 담는 자들이 하는 행태란, 왜놈들을 끼고 궁궐을 에워싸고 임금을 협박하는 일인데, 그것은 완전히 갑신년(1884, 고종 21)의 여러 역적(갑신오적: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이 하던 술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1894년의 일은 예법과 예의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트리는 것으로, 이는 갑신오적도 미처 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김가진, 안경수, 조희연, 유길준 등과 같은 역적들, 그리고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역적들과 함께 모의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던 김홍집 등이 저질렀다고 비판하였다.<sup>17)</sup> 이쯤하면 최익현이 말하고자 하는 개화하는 본색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최익현은 갑신년(1884, 고종 21)의 경우와 갑오년(1894, 고종 31)의 경우에 대해 말하면서,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본색을 알고도 남을 일일 텐데 우리 안의 역적들은 일본의 술책에 빠지기를 달갑게 여겨 희희낙락하며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sup>18)</sup>

최익현은 우리 안의 역적을 성토하고 복식·복제를 복원하는 일에 대한 상소를 통해 근대사의 형용어에 해당하는 개화-자주-문명-부강의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을 엄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익현은 ‘개화’

16) 『勉菴集』, 卷16, 「寄日本政府丙午閏四月七日」.

17) 『勉菴集』, 卷4, 「請誦逆復衣制疏[乙未六月二十六日]」.

18) 『勉菴集』, 卷4, 「請誦逆復衣制疏[乙未六月二十六日]」.

는 풍속을 오랑캐의 것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며 앓과 삶이 세계를 금수의 상태로 오염·타락시키는 것을 일컫는다고 지적하였다. 최익현은 개화라는 말은 의미상 집안을 무너트리고 나라를 망치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최익현은 ‘자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전적 의미 규정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 그 생각 없는 자들이 사용하는 기만의 언어라고 비판하였다. 자주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이 나라를 자진해서 왜놈들에게 내어주고서도, 정사와 법령을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채 필히 왜놈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비주체적·반자주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익현은 ‘문명’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라를 잃고 힘도 없는 임금을 거정으로 존중하는 척하면서 황제라는 빈껍데기 호칭만 그럴듯하게 붙여주는 것이라고 일컬었다. 예의가 무너진 세상, 오랑캐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형용하는 표현법이 다름 아닌 문명이라고 규정하였다.

최익현은 개화·자주·문명의 개념을 새롭게 재규정하면서 과연 개화·자주·문명의 개념이 일반적인 풀이나 사전적 의미 제시만으로도 충분한 것인가를 묻는다. 그런 규정은 중국에는 기만과 폭력의 언어적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였다. 왜 그것이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인가. 그것은 최익현이 개화·자주·문명에 대한 풀이에 이어 무엇보다도 부강에 대한 풀이에 비중을 두고 설명을 이어간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모두가 왜국을 신뢰하면서 이르기를 “왜국이 우리를 개화토록 도와 부강한 업적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말하자면, 부강이라는 말은 그 유래가 오래된 말입니다.……전하도 근일의 개화한다는 자들의 소독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 삼아 살피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적을 사면 방만한 일이나 복제를 무너뜨린 일들이 어찌 나라의 부강에 이로운 일이겠습니까. 나라를 왜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면서, 사사건건 왜인들의 것을 배웠지만, 그리하여 재정과 양식이 더욱 풍부해졌다거나 백성이 더욱 많아졌다거나 군대가 더욱 강성해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저 왜인들은 예법은 버리고 이득만을 챙기는 오랑캐입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오래도록 수고롭게 군대를 동원하고 재정을 낭비하면서 이웃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바랄뿐 그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흉악하고도 간사한 음모와 계책을 숨긴 채 우리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짓들입니다.……설령 왜의 도움을 받아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중국에는 절대로 부강한 나라가 되지도 못할뿐더러 단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sup>19)</sup>

최익현은 개화파지식인들이 말하는 그 개화로는 결코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없다고 보았다. 왜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없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이라면, 그들이 부강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와 직결되는 필수요소인 군사제도(軍制)를 없애고 국가방위(防戍)를 포기하는 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옹당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나라 형세가 날로 약화되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최익현의 이상의 논점은 가장 직접적으로 1894년 6월 10일 밤, 오토리 게이스케가 일본 군대를 거느리고 대궐을 침범하여 영추문을 불태우고 주상을 위협하고 정치개혁을 청하고, 모든 궁중의 보화와 기계를 탈취한데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국가의 대세가 모두 왜적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익현은 당시 김홍집, 유길준, 김윤식 등이 오토리 게이스케와 결탁하여 국가의 정법을 개혁한다면서 이를 ‘개화’라고 칭한 것에 대해, 그 한계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최익현의 개화-자주-문명-부강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개화’는 사람을 금수로 타락시키는 일, 국가를 망치고 집안을 전복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자주’는 국가를 일본에게 넘겨주고서 우리나라의 정사와 법령에 대해 하나하나 일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일을 일컫는다. ‘문명’은 국가

19) 『勉菴集』, 卷4, 「請誦逆復衣制疏[乙未六月二十六日]」.

20) 이하 최익현의 개화-자주-문명-부강의 개념에 대한 해석과 부연은 박균섭 (2023). 근대 수선담론의 발생사 비판: 공존의 인간학, 9, 261-262 참조.

를 잃은 군주를 거짓으로 존중하고 호칭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일, 역지로 예의를 무너뜨리고 오랑캐로 추락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부강’은 우리나라의 군제를 없애고 국가방위를 폐지하여 국가의 형세를 날로 약화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이상의 논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근대사 연구의 차원을 간략 제시하자면, 도통 관념(의리사상, 절의정신)을 소홀히 한 채 문명 담론(개화 자주 문명 부강)을 크게 드러낼 경우, 그로 인한 역사 왜곡과 굴절은 심각한 정신적 균열과 가치관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III. 최익현의 창의격문과 재격문

최익현의 도통관념, 의리사상과 절의정신을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로는 총 28차에 걸쳐 작성 제시한 상소문을 들 수 있다.<sup>21)</sup> 하지만 최익현은 국가적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자 상소문을 통한 시국 대응으로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고, 직접 항일의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1906년 1월, 최익현은 곁리사(關里祠: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서 수백 명의 유림을 모아 국망의 위기 앞에서 국권 회복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sup>22)</sup> 최익현은 1906년 윤4월 10일 전라북도 태인의 임병찬과

21) 최익현의 상소문을 시간 흐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최영희 (1979). 면암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79년 12월 25일]. 「丙寅疏」(1866), 「掌令時言事疏」(1868.10.10.), 「齋教寧存都正疏」(1868.10.25.), 「辭司副承旨疏」(1873.10.16.), 「辭戶曹參判兼陳所覽疏」(1873.11.3.), 「持斧伏闕斥和議疏」(1876.1.22.), 「請語逆復衣制疏」(1895.6.26.), 「宣諭大員命下後陳懷待罪疏」(1896.1.11.), 「辭議政府贊政疏」(1898.9.18.), 「辭宮內府參進官疏」(1898.11.19. 1898.12.19. 1902.3.27.), 「議官許處後引咎自明疏」(1902.10.27.), 「辭議政府贊政疏」(1904.7.26. 1904.8.13. 1904.8.21. 1904.9.23.), 「漱玉軒奏笏」(1904.12.2.), 「關外待命疏」(1904.12.8. 1904.12.24. 1904.12.28. 1905.1.26.), 「被髮野豕告歸疏」(1905.3.15.), 「請語王賊疏」(1905.11.3. 1905.11.14.), 「倡義書賊疏」(1906.閏4.11.), 「遺疏」(1906.7.11.). 매천 황현이 면암 최익현의 죽음을 곡하면서 “젊은 나이에 이항로 선생의 문하에 들어[英年抱贊藥溪門] 애타는 백성 구하고자 상소를 올리셨네[救火人家位偶尊]”라고 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최익현의 국가의 위급을 해결키 위한 충정은 28차에 걸친 상소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梅泉集』, 卷4, 「哭勉菴先生」).

군사 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113명의 지사들과 함께 『동맹록』을 작성하였다.

최익현은 1906년(고종 43) 6월 4일,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각지 도처의 유생과 의병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병을 결의하고, 의거에 임하는 각오와 심정을 피력했으며, 격문을 여러 고을에 보내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는 신(信)으로 갑옷과 투구를 삼고 의(義)로 방패를 삼아 죽을 각오로 우리 앞의 원수를 무찌르는데 앞장서지는 얘기였다.

#### [창의격문]

난적(亂賊)의 변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을까마는 그 누가 오늘날의 역적과 같았으며, 이적(夷狄)의 화가 어느 나라인들 없었을까마는 그 어느 것이 오늘날의 왜놈(倭虜)과 같았는가. 의병을 바로 일으켜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저 도적 일본(日本之賊)은 실로 우리에게 백세의 원수이다. 임진년의 흉사(凶肆)에 이릉(二陵)의 화는 차마 말할 수 있는가. 병자년의 수호조약은 다만 외이(外夷)가 우리를 엿보는 것을 인도했을 뿐이다.……(저들은) 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았다. 우리 대관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짓밟았으며, 무덤과 집을 파헤쳤다. 토지를 빼앗아 민생의 자원에 관계되면 무엇이든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아직도 부족하게 생각하여 갈수록 더욱 탐욕을 부린다. 지난(1905년) 10월의 소행은 실로 만고에 없었던 일이다. 하룻밤 사이에 종잇조각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여, 오백년 종사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우리나라를 통째로 원수에게 내어준 역적 이지용(李址鎔)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의 원수요, 제 임금을 죽이고 남의 임금을 범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라는 놈은 마땅히 천하의 모든 나라가 함께 토벌해야 한다.……변을 당한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토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임금이 망하는데 신하가 어찌 홀로 살아 있으며, 나라가 망하는데 백성이 어찌 홀로 보존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 저 마루 위의 참새와 솔 안의 물고기처럼 함께 죽게 되었는데 어찌 한번 결사항전하지 않겠는가. 연명하여 원수의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는 것이 어찌 낫지 않겠는가. 익현(益鉉)은 나이가 많고 병이 깊으며 재주도 없고 힘도

22) 『勉菴集』, 卷16, 「魯城關里禱講會時誓告條約」.

부족하여 조그마한 충성도 바치지 못하였다. 비록 귀양 갔던 부끄러움이 있으나, 목숨이 아직 남아 있으니 복수할 뜻을 잊을 수가 없다.……놈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놈들의 가죽을 바닥에 깔고 자며, 저 원수 오랑캐를 타도하고 그 종자를 멸하고 그 소굴을 소탕하여 무엇이든 복구하여 나라의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위협을 안정으로 바꾸어 백성을 도탄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오직 믿는 것은 군사를 일으킨 명분이 정대하니 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두루 고하노니 성공하도록 함께 힘쓰라.<sup>23)</sup>

최익현은 창의격문에서, 난적의 변(亂賊之變)이 어느 시대든 있었지만 오늘날의 역적(今日逆魁)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자들임을 말하고, 이적의 화(夷狄之禍)가 어느 나라든 있었지만 오늘날의 왜적(今日倭虜)과 같은 극악한 놈들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로써 보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의병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최익현은 현 상황은 마루 위의 참새(堂上之雀類)와 솥 안의 물고기(釜中之魚等)처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에, 살아서 원수의 노예(讎人之役)가 되는 것보다는 죽어서 충의의 혼(忠義之魂)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일전(一戰)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sup>24)</sup>

최익현은 당시의 국가적 변고와 위기상황을 “박과불식(剝果不食)의 상황”, “땅에 얼음이 굳게 언 상태[坤氷方堅]”라고 보았고, 이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창과 방패를 수선하고 결전 의지를 다져 역적의 무리를 섬멸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최익현은 격문에서 “놈들의 살점을 뜯어 먹고 놈들의 가죽을 바닥에 깔고 자며[食其肉而寢其皮], 저 원수 오랑캐를 무찔러[殲剿讎夷] 그 종자를 멸하고 그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絕其種而擣其穴]”고 말하고, 이를 위해 “오직 믿는 것은 군사를 일으킨 명분이 정대하니[所恃師直] 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라[毋畏敵勅]”는 정통 유교의 의리

23) 『勉菴集』, 卷16, 「倡義檄文」.

24) 『勉菴集』, 卷16, 「倡義檄文」.

25) 『勉菴集』, 卷16, 「倡義檄文」.

사상, 절의정신을 분명히 제시하였다.<sup>26)</sup>

[재격문]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 맹세코 와신상담을 잊지 말아야 하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니 등지와 알이 모두 깨짐을 통탄한다. 적왕(敵王)을 격파하여 그대들과 함께 분개하며 원수를 갚으리라……그런데 어찌다가 우리나라(環海之域)가 불행히도 왜(倭)와 이웃이 되어 과거 삼한 이래로 몇 번이나 명분 없는 침범을 당하였다. 중세에는 이릉(二陵)의 치욕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꼭 참고 반드시 갚아야 하는 원수에게 회유책으로 대우해 주었으니, 저들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어늘 끝없는 욕심을 부리며……끝내는 국모를 시해하기까지 하였다. 우리에게 머리를 깎고 옷을 검게 하도록 한 것은 귀를 막게 하고 방울을 흠치는 수작이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항구를 개방하도록 한 것은 이른바 껍질만 남겨 놓고 알맹이를 빼가는 것이다. 군사적 대비를 철폐하였으니 사직을 호위할 수 없으며, 재원이 고갈되었으니 백성과 나라가 함께 망하게 되었다……그러나 저 뱀과 돼지 같은 왜적의 횡포는 실로 우리의 여우와 쥐새끼 같은 역적이 맞아들인 것 때문이니, 이적의 화를 멈추려면 마땅히 먼저 난적을 엄히 처단해야 한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컫는 을사오적은 나라가 망하려고 생긴 요물로서 염치가 없어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다……저 오적의 살점을 뜯어먹고 가족을 바닥에 깔고 자더라도 온 백성의 분개함을 달랠 수 없고, 그 집에 못을 파고 삼족을 멸할지라도 하늘에 가득한 죄를 다 받지 못할 것이다……익현(益鉉)은 관직 없이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충성심(丹心)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향병(鄉兵)을 부르고 경병(京兵)을 합하면 풍운(風雲)이 일어나고 내적(內賊)을 베고 외적(外賊)을 물리치면 태양이 다시 밝을 것이다……무릇 우리 학사(學士)·대부(大夫)로부터 여대(與臺)·하천(下賤)에 이르기까지 그 즐거움을 즐거워하였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겼으니,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성공과 실패를 미리 헤아릴 것이 아니다. 함께 배를 타고 건너야 하니, 위태할 때에 한 팔의 힘이라도 도와주고, 도끼를 들고 정벌하니 다투어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우라. 강상(綱常)이 늠름하게 중하니 의를 갖고서 임금을 뒤로 여기는 자 없으며, 존양(尊攘)의 공이 빛나리니 몸으로써 도에 순사(殉死)하기를 기약하여 신하된 절의(節義)를 다하려고 감히 기병(起兵)할 기일(期日)을 고한다.<sup>27)</sup>

26) 『勉菴集』, 卷16, 「倡義檄文」.

최익현은 일본의 기만과 폭력에 넘어간 우리는 군사 주권을 빼앗기고 국가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백성과 나라가 함께 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침략자 일본은 다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며, 끝내는 1905년 11월 17일에 대결을 침범하여 한밤중에 불법적·강압적으로 조약을 맺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을사늑약 정국에 대한 최익현의 정서·심리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최익현이 “저 뱀과 돼지 같은 왜적의 횡포는[然此蛇豕之逞凶] 실로 우리의 여우나 쥐 같은 역적이 맞아들인 때문이니[實由狐鼠之輸款], 이적의 화를 멈추려면[故欲紓夷狄之禍] 마땅히 먼저 난적을 엄히 처단해야 한다[宜先嚴亂賊之誅]”거나 “오늘날 세상에서 일컫는 을사오적은[今夫世所稱五賊者] 나라가 망하려고 생긴 요물로써[國之將亡妖孽必有] 염치가 없어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대[人而無恥禽獸不如]”고 증오감과 적개심을 드러낸 데서 분노의 심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익현의 을사오적에 대한 증오감과 적개심은 어떤 형용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최익현은 을사오적에 대해 “저 오적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깔고 자더라도[食肉寢皮] 온 백성의 분개함을 달랠 수 없고[難洩率土之憤], 그 집에 못을 파고 삼족을 멸하더라도[瀦宮夷族] 하늘에 가득한 죄를 다 받지 못할 것이다[未贖滔天之辜]”는 말로 성토했다.<sup>28)</sup> 최익현은 국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의병을 일으키면서 그 투쟁의 실패와 성공을 미리 헤아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최익현은 왜적을 향한 의병 투쟁을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상황[同舟以濟]”과 “도끼를 들고 정벌하는 상황[杖鉞于征]”으로 규정하면서, 합심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것,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sup>29)</sup>

27) 『勉菴集』, 卷16, 「再檄文」.

28) 『勉菴集』, 卷16, 「再檄文」.

29) 『勉菴集』, 卷16, 「再檄文」.

#### IV. 의병장 최익현의 항일의병투쟁 전후

매천 황현의 을사년 변고(1905.11.17.)에 대한 문제의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면암 최익현에 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현이 을사년 변고를 맞아 자결한 민영환(1861~1905), 홍만식(1842~1905), 조병세(1827~1905)를 거명하고, 이미 죽고 없는 이진창(1852~1898)과 아직 죽지 않은 최익현(1833~1896)을 불러낸 장면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홍만식(1905.11.28.), 민영환(1905.11.30.), 조병세(1905.12.1.)의 경우, 그들의 죽음이 을사년 변고에 대한 치욕을 참지 못해 내린 극단적 선택이기도 했지만, 황현이 최익현을 거론하는 지점의 횡간을 읽는다면 머지않아 그가 자결할 것이라는 얘기였고, 그리하여 다섯 사람을 묶어서 시를 쓴 후 ‘오애시’라는 제목을 붙였다.<sup>30)</sup> 황현이 오애시에서 최익현을 향해 ‘자애(自愛)’할 것을 주문한 것은 유교지식인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나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일이라는 역설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1906년(고종 43) 6월 11일, 고종의 선유조칙을 받든 광주관찰사 이도재가 순창에 주둔하고 있는 최익현 의병대를 향해 해산을 종용했으나 최익현은 이를 거부했다. 바로 그날, 전주관찰사 한진창이 이끄는 전라북도지방 진위대의 포위공격을 받아 최익현은 고석진·임병찬 등 13명과 함께 순창에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 헌병대에 구금되었다. 최익현은 일본 헌병대에 구금되었던 당시 “글 읽는 사람은 방위의 책임도 없고[書生無軍旅之責], 80이란 나이는 종군할 때도 아니다[八旬非從戎之年]”고 하면서도 “다만 이 비상한 변고를 당했기에[但值此非常之變] 위로 조정에서 아래로 농촌에 이르기까지 [自上朝廷下及草野]” 모두가 구국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최익현은 “제집에만 있고 나라일을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其惟日在家不知者] 결코 인심이 없는 자라고 한다[決是無人心者也]”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30) 『梅泉集』, 卷4, 「五哀詩」.

모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최익현은 스스로가 항일의병투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 “내가 지은 양화로씨[第孽由自作] 제군들에게 누가 미치게 하였으니[累及諸君] 부끄럽고 저버린 것이 적지 않다[慚負多矣]”고 자책하였다.<sup>31)</sup> 최익현은 항일의병투쟁에 끝까지 함께 했던 고석진(高石鎭, 1856~1924), 임병찬(林炳瓚, 1851~1916), 문달환(文達煥, 1852~1938), 양재해(梁在海, 1854~1907), 임현주(林顯周, 1858~1934), 김기술(金箕述, 1849~1929), 조우식(趙愚植, 1888~1937), 조영선(趙泳善, 1879~1932), 최제학(崔濟學, 1882~1961), 이용길(李容吉, 1870~?), 유해용(柳海瑢, 1884~1938), 나기덕(羅基德, 1876~1932) 등 12명에게는 시를 지어 주었고,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정시해(鄭時海, 1872~1906)에게는 만시(輓詩)를 지어 바쳤다.<sup>32)</sup>

해질 무렵 순창의 여관에서[落日淳昌館]/죽음을 맹세한 이 겨우 열 네 명  
이었는데[誓死纔二七]/오로지 그대가 먼저 목숨을 바쳐서[惟君先致命]/우리  
도 생색을 내게 되었다네[吾輩賴生色].

최익현은 임병찬과 함께 일본군사령부에 인계되어 대마도에 유배, 감금되었다. 의병활동을 위해 관계 요로에 작성 전달된 글들은 한말사 연구의 주요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최익현이 의병활동에서 소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왜적에게 붙잡혀 울적한 심회를 읊은 여러 시편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최익현은 한평생을 우국충정과 애국애족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sup>33)</sup>

그런데 최익현은 왜 하필 대마도에 유배·유폐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의병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등 항일투쟁의 열기가 고조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그 기세를 꺾을 방안을 강구하는

31) 『勉菴集』, 卷2, 「日獄中默會[五絕十四首]」.

32) 『勉菴集』, 卷2, 「日獄中默會[五絕十四首]」.

33) 최영희 (1979.12.25.). 면암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과정에서 홍주의병에 대한 잔악무도한 탄압으로 인한 비난여론을 무마하면서도 의병의 고조되는 열기를 잠재우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의병을 굳이 다른 곳도 아닌 대마도에 유배·유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의병 유폐 계획을 처음 구상한 것은 1906년 7월 초순으로 추정된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 7월 11일자로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에게 보낸 전보에 항일의병의 처리 방안이 등장한다. 전보에 기술된 키워드를 뽑아보면, ① 폭도 수령으로 지목한 자, ② 사형에 해당하는 자 5명, ③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협의, ④ 사형을 감하여 종신감금으로 선고, ⑤ 대마도에 배치하여 대마도 수비대의 감시 하에 감금할 것을 희망, ⑥ 한국 정부에 맡겨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⑦ 아라비 파샤(Arabi Pasha)를 콜롬보에 유배한 고례를 본받으려 함 등을 들 수 있다.<sup>34)</sup>

일제 강점자들은 당시 전국 의병 가운데 규모나 저항의 정도에 비추어 특히 문제되었던 홍주의병을 대마도에 유폐시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직접 관리 통제하고자 하였다. 한말 중기 의병에 속하면서 대마도 유폐의병으로 불리는 이들은 나라의 기축을 혼든 국사범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항일세력과의 분리를 꾀한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의병을 대마도에 유폐시킨다는 방안은 영국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이집트 민족운동의 영웅인 아라비 파샤(Arabi Pasha, 1841~1911)를 실론(Cylon, 지금의 스리랑카)으로 유폐했던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었다.<sup>35)</sup> 최익현에 앞서 19일 전에 대마도에 유폐된 홍주의병 9인의 명단은 이칙(李弼, 1873~1936), 유준근(柳濬根, 1860~1920), 안항식(安恒植, 1860~1922), 신보균(申輔均, 1865~1912), 이상두(李相斗, 1859~1926), 최상집(崔相集, 1846~?), 문석환(文奭煥, 1869~1925), 남규진(南奎

34) 김상기 (2006).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 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26-158.; 박민영 (2006). 한말 의병의 대마도 피수 경위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59-192.

35) 박민영 (2006). 한말 의병의 대마도 피수 경위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59-192.

振, 1863~1935), 신현두(申鉉斗, ?~?) 등이다.

홍주의병 9인의 뒤를 이어 대마도에 유배된 최익현·임병찬의 경우도 이토 히로부미의 대마도 유배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홍주의병 9인은 1906년 6월 18일 서울을 출발하여 6월 19일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최익현과 임병찬은 1906년 7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7월 9일 대마도에 도착하여 상면하였다.<sup>36)</sup>

최익현은 유배지에서도 지급되는 음식물을 적어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하고 단식을 계속하다가 유소(遺疏)를 구술해 임병찬에게 초록을 만들어 올리게 한 뒤 1906년 12월 30일에 순국하였다.<sup>37)</sup> “한 손갈의 밥(一匙之米)이나 한 모금의 물(一呷之水)도 모두 왜적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거부한 최익현이야말로 조선을 조선에게 한 참된 선비정신의 소유자였다.<sup>38)</sup>

최익현과 임병찬이 대마도에 도착한 후 먼저 대마도에 와있던 홍주의병 9인 전체가 참여하여 시를 주고받았다. 국망의 위기 앞에서 무망한 현실을 아파했던, 그 짧은 고뇌의 시간 귀적이 수창시를 통해 그려졌다. 그것은 의리사상과 절의정신을 드러내는 극명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07년 7월 23일, 최익현이 대마도 감옥(對馬島囚館)에서 먼저 들어온 홍주의병 9인에게 각각 지어준 시는 다음과 같다.<sup>39)</sup>

1. 이칙에게 부침: “조그마한 서생 의리에 돈독하니[藐爾書生秉義敦/고

36) 이병찬·박우훈 (2004). 대마도일기 수창시 연구: 최익현·임병찬·홍주의사 구인의 수창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4, 308.

37) 『勉菴集』, 卷5, 「遺疏[丙午七月十一日/丁未三月七日(登徹)].」

38) 『勉菴集』, 卷5, 「遺疏[丙午七月十一日/丁未三月七日(登徹)].」

39) 『勉菴集』, 卷2, 「對馬島囚館贈先來九人.」 이 밖에도 최익현의 대마도에서 지은 시로는, 1907년 7월 27일의 <함께 옥살이를 하는 여러 친구들이 대개가 상투를 드러내고 있어 각자에게 치포관을 만들어 쓰라고 권함>(『勉菴集』, 卷2, 「同囚諸君大半露髻勸使各製緇布冠以著之」), 1907년 7월 29일의 <위수영에서 본 것을 읊다>(『勉菴集』, 卷2, 「衛戍營賦所見」), 1907년 8월 6일의 <통역 아비루의 사람됨이 겸손 순량한 것을 보고 시 한 수를 써서 주다>(『勉菴集』, 卷2, 「通譯阿比留爲人遜良書贈一絕」), 1907년 8월 11일의 <통역 오우라 시게타가 시를 구함>(『勉菴集』, 卷2, 「通譯大浦茂太乞詩」) 등이 있다.

- 가의 풍모가 지금도 남아 있네[古家風韻至今存]/사를 잊고 공을 위함이 장한 일이지는 하여도[忘私公耳雖云壯]/홀어머니가 문밖에서 기다리니 어찌할거냐[其奈偏慈望倚門].”
2. 유준근에게 부침: “선비는 나랏일에 관계없다는[布韋於國事無關]/답답한 세상 여론이 한심하기만 하네[泄世時論膽欲寒]/모든 사람들은 바람에 쓸리는데[一切隨風濡首地]/그대만이 옛 의관을 지켜 왔구나[許君能守舊衣冠].”
  3. 안향식에게 부침: “그대 가문의 명의를 익히 들은 바이기에[君家名義聞曾慣]/도 없는 세상에 눈이 다시 열리네[幾息乾坤眼忽開]/거센 물 험한 산 괴롭다 말하지 말게[鱗水蛇山休說苦]/나무는 풍설을 겪어내야 재목이 되는 법[木經風雪也成材].”
  4. 신보균에게 부침: “한밤중의 슬픈 노래 어찌 그리도 걱정적인가[中夜悲歌何激越]/세상에는 『춘추』를 읽을 곳마저 없구나[世間無地讀春秋]/그대의 유서 깊은 가덕을 알고 있으니[曾知家德源流遠]/만물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기를[勉向桑榆努力收].”
  5. 이상두에게 부침: “맹손으로 범을 때려잡고 맹발로 황하를 건넌다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暴虎憑河吾不與]/공자가 분명히 남긴 훈계라네[聖門垂誡自分明]/오직 그대는 앞장서서 의리를 실천하여[惟君秉執能先義]/사심으로 일의 경중을 계교하지 않기를[不以私較重經].”
  6. 최상집에게 부침: “금수가 날뛰는 산하에 하늘 또한 늙었으니[蹄迹山河天亦老]/이번 거사에 어찌 백발을 부끄러워하라[此行何愧鬢毛華]/두 소매에는 연하를 가득 거두었으니[袖中勤拾烟霞滿]/고향에 돌아가 날 찾는 손님들에게 자랑하려네[歸對鄉園座客誇].”
  7. 문석환에게 부침: “내 몸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인데[寄吾身處便吾室]/만 리의 험한 파도 하늘에 닿았구나[萬里層溟接太虛]/언제나 자연스러운 그대 같은 사람 몇이나 될까[隨地安閒如子幾]/아노라 그대는 옛날 삼동에 공부가 많았었지[知應前此富三餘].”
  8. 남규진에게 부침: “늙은 어머니 어린아이에 가난이 심한데[母老子孩貧且甚]/누가 그대의 이같은 행보를 짐작했을까[百般誰意有今行]/만사는 이미 결정난 일[從知萬事皆前定]/어찌 구구히 아녀자들의 정에 흔들릴까[肯作區區兒女情].”
  9. 신현두에게 부침: “어릴 때 사랑을 알고 성장하여 공경을 알면[幼而知愛長知敬]/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는 않을 것[人不虛生此世間]/그 밖에 잘되고 못됨을 어찌 계산하냐[餘外窮通何足算]/옛사람들

모두 평탄한 길로 돌아왔네[先民皆自坦途還].”

1906년 12월 30일에 대마도에서 세상을 떠난 최익현의 유해는 1907년 1월에 고국으로 봉환되었다. 최익현의 묘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봉수산에 있고(顯章碑: 勉菴崔益鉉先生春秋大義碑), 동상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리산에 있으며, 구택은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장구동에 있다(慕德祠). 백제의 비구니가 창건했다는 대마도의 수선사에는 <면암 최익현 선생 순국지비>가 세워져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이를 굳이 세상에 내세울 일은 아닌 것이 그것은 유교 선비가 가야 할 지극히 당연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황현은 최익현에 대해 “고국에 산 있어도 빈 그림자만 푸르니[故國有山虛影碧], 가련하다 뼈를 묻을 곳 어느 곳인가[可憐埋骨向何方]”라고 한탄하였다.<sup>40)</sup> 황현은 최익현의 우국충정, 절의정신에 대해 “풍상에 시달린 머리 온통 하얀 사람[風霜鍊髮白毳絳]”이자 “혹독한 형벌도 태연하게 받아들인 사람[劍樹刀山嗜若甘]”이라고 높이면서 “칠십 생애가 천년의 역사를 가름할 것이니[過年七十來千歲] 공처럼 좋은 명운은 역대에 드물다[歷數如公命好稀]”는 말로 평가하였다.<sup>41)</sup>

최익현의 위정척사론과 우국정신은 한말의 항일의병 투쟁과 일제강점기의 민족 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 계승되었다.<sup>42)</sup> 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엄

40) 『梅泉集』, 卷4, 「哭勉菴先生」.

41) 『梅泉集』, 卷4, 「哭勉菴先生」.

42) 위정척사파들이 항일의병투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항하였다면 개화파들은 모든 사태의 궁극적 원인을 조선의 무지와 무능으로 규정하고 계몽과 실력양성을 통한 자강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말의 자강론자들은 ‘선실력양성-후독립’이라는 실력양성운동론을 세계관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선실력양성-후독립’의 논리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논리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박찬승 (1997).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370.; 이상익 (1997). 서구의 충격과 근대한국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71 재인용].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실력양성의 논리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실력양성을 호소하고 다짐하는 논리였지만, 제국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그들의 침략전쟁과 학살만행을 합리화·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일부의 실력양성론자들이 그 논리적 한계를 깨닫고 선독

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에, 일본 보수우익의 입장에서는, 한국 병합은 일본의 존립·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며, 그 병합을 야기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한국병합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병합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데 능란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일본의 정계·관계·재계의 지도층이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생각이며,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식의 망언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하타다 다카시는 “조선관은 일본인 의식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리트머스시험지”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sup>43)</sup>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 문제에 대한 논의 주제로 동양척식회사, 치안유지법, 내선일체화·동화정책, 황민화교육,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학살, 조선인 강제연행 등을 들고, 전봉준의 갑오농민전쟁과 최익현의 항일의병투쟁을 필두로 한 조선민중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에 주목할 것을 역설하였다.<sup>44)</sup> 하타다 다카시가 최익현의 항일의병투쟁에 주목했듯이, 식민지 조선의 민족교육에서도 『애국창가집』의 「영웅의 모범」을 통해, 목숨을 걸고 일본 타도에 나섰던 이순신의 전략, 광재우의 모범, 최익현의 절개, 안중근의 의기 등을 대표로 삼아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작업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최익현은 일본의 군신들(其國君臣)이 동양평화(東洋平和)-교의익친(交誼益親)을 내세우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이목을 기만하는 행태를 문제 삼는 한편, 우리 안의 역적들(我賊臣輩)이 “일본에 외교권을 잠시 빌려 주고 暫借外交權於日本] 우리가 부강하게 되면 다시 찾는다[待吾富强索還]”는 기괴한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이를 나라를 망치는 원수들의 망상이라고 성토했

립론으로 선회하였을 때 드디어 독립군 투쟁으로 나갈 수 있었다[이상익(1997). 서구의 충격과 근대한국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71.].

43) 旗田巍(1969). 日本人の朝鮮觀. 東京: 勁草書房, 210.; 고길희(2005). 하타다 다카시. 서울: 지식산업사, 223에서 재인용.

44) 旗田巍(1987). まえがき. 旗田巍編 朝鮮の近代史と日本. 東京: 大和書房, 1-2.

45) 姜徳相編(1966). 現代史資料25 朝鮮1 三・一運動加. 東京: みすず書房, 10-11.; 박득준(1995). 조선교육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74-175 참조.

다.46) 최익현이 말하는 ‘우리 안의 역적들’의 대표로 유길준과 박영효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유교경전의 핵심어를 내세워 교묘한 언어유희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의 및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교 연구의 일례로, 『중용』의 본질에 대해 정직하게 공부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강고한 세계관과 위기의 현실에 대응하는 지혜를 보여줄 수 있다.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할 수도 있으며[天下國家可均也], 작위와 봉록을 사양할 수도 있으며[爵祿可辭也], 서슬 퍼런 칼날을 밟을 수도 있지만[白刃可蹈也], 중용의 도는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中庸不可能也].47)

자료가 스승 공자에게 강함에 대해 묻자, 스승은 남방의 강함(南方之強)과 북방의 강함(北方之強)과 자로의 강함(抑而強) 중의 어느 것인지를 되묻고, 혈기의 강함(血氣之剛)보다 덕행의 강함(德義之勇)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강함을 ‘꿇꿇함(強哉矯)’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그 꿇꿇함이란 인화(人和)·중립(中立)·의지(意志)·지조(志操)를 변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중용』 제9장에서 말하듯, 중용의 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일, 그것은 서슬 퍼런 칼날[白刃]을 밟는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화기 이래 일제강점기 일본식 유교에 현혹된 자들은 중용을 너무 함부로, 쉽게 그들의 일탈과 탐욕을 미화·정당화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러한 흐름은 친일유림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48)

중용의 덕행의 강함—그 꿇꿇함이란 망국의 현실에서는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이 제시한 처변삼사(處變三事: ① 舉義掃清, ② 去之守舊, ③ 自靖致命) 중의 하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49) 중용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높고 강고한 삶의 기준이 요청되는가를 보

46) 『勉菴集』, 卷5, 「倡義掃清疏[丙午閏四月十一日]」.

47) 『中庸章句』 第9章

48) 박근섭 (2023). 근대수신담론의 발생사 비판: 공존의 인간학, 9, 253-294.

49) 『勉菴集』, 卷24, 「答湖西諸公」, 卷38, 「書贈李紀仲洪元玉歸故國」, 卷55, 「年譜」.

여주는 대목이다. 중용을 말할 수 있는 자격, 그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말하자면, 친일 유림이 내뱉는 『중용』적 세계관(중용, 중화, 중정, 시의, 시중)은 입과 귀로 들먹이는 사이비 유교론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중용은 도와 덕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이탈한 것이며, 그 이탈은 현실적으로 친일 변절행위를 미화·정당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를 친일 유림의 화법으로 말하자면, 유교경전을 근거로 삼아 망국의 현실을 수용할 것, 주어진 현실에 순응할 것, 식민지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내세웠다.<sup>50)</sup> 유교 사상은 이렇게 친일반민족 세력에게는 망국마저도 쉽게 용인하는 사상으로 작용했다. 이들을 문제 삼는 과정이야말로 유교 공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면 최익현, 황현, 이만도 등이 걸었던 유교 지식인의 길이 참으로 걷기 힘든 길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국망의 위기 앞에서 왜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했고 망국의 현실 앞에서 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명징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 학문을 통해 삶의 바른 길을 모색했던 유교 지식인—선비들은 그런 각고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 최익현의 삶과 삶의 세계도 딱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삶의 행태를 보이면서도 이를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젊잖게 훈계하고 충고하는 자들이 있다. 근대사의 길목에서 너무도 쉽게 자주 목도할 수 있었던 친일지식인들을 그 대표로 들 수 있다. 최익현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나라밖의 왜적들과 내통하여 그들의 침탈을 용이토록 도와준 우리 안의 역적들이다. 최익현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개화파 지식인 학자들로 불리는 자들은 ‘우리 안의 역적’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익현이 말하는 우리 안의 역적들(我賊臣輩), 일본 편향의 개화파 지식인, 그리고 일본유학—황도유학(皇道儒學)을 신봉했던 친일·전시체제형 유림들은 유교의 기본과 근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의 친일·매국·배족 행위

50) 정옥재 (2007). 일제 협력 유림의 유교인식: 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85.

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중용(中庸)-시중(時中)-시의(時宜)-시국(時局)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조선이 망하던 때에는 76명의 양반이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합방공로작을 수여받고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겼다. 유교의 도통 관념(의리사상, 절의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으나, 그들의 세계관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결코 팔아서는 안 될 나라를 팔았고, 결코 누려서는 안 될 온갖 호사를 누렸다. 면암 최익현, 매천 황현, 향산 이만도의 선비정신과 그 실천적 삶을 통해 친일·매국·배족 행위가 어떻게 개화·자주·문명·부강의 탈을 쓰고 행했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할 일이다. 우리는 왜 지식인을 중심으로 친일·매국·배족 행위가 형성되고 가동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화와 지식인들은 서구=일본을 근대의 준거로 설정하고 한국의 사회문화를 열등 그 자체로 인식하는 가운데 개화·자주·문명·부강을 내세웠다. 개화와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민족에 대한 부정과 자학으로 흘러 민족허무주의로 귀착되고 말았다. 그것은 최익현이 그토록 염려하고 우려했던 문제 상황이 근현대사 장면에서 기어코 연출되고 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V. 최익현 연구의 교훈

한말 의병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정신을 이어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일 투쟁 나섰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은 관군과 명군의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도 있었으나, 한말 의병은 관군이 일본군과 연합하여 의병을 진압·공격했으며, 그 국제역학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옹당 일본을 지지·지원하는 특성을 보였다. 의병 전쟁은 죽음을 각오한 전쟁이며 승패를 헤아리지 않고 치른 무모한 성격의 전쟁이었지만, 한말 의병 전쟁은 그 무모함이 더더욱 큰 것이기도 했다. 한말 의병의 경우 2-3만 명에 달하는 의병이 학살되었을 정도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sup>51)</sup>

항일 의병 투쟁은 1895년 이래의 전기 의병(1차 의병), 1905년 이래의 중기 의병(2차 의병), 1907년 이래의 후기 의병(3차 의병)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호남의병의 경우는 동학농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삼광작전에 의한 피해가 워낙 컸기에 전기 의병(1차 의병) 투쟁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였다. 반면 중기 의병(2차 의병)에 해당하는 최익현의 태인 의병의 경우,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과 일제의 침략상을 성토힌면서 전개되었는데, 이때도 관군·일본군 연합부대의 출동에 맞서야 하는 관계로 동족 살상으로 이어지는 전투보다는 동족간의 전투를 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동족간의 부전을 택한 결과, 의병장 최익현과 임병찬·고석진 등의 의병지휘부는 서울로 체포·압송된 후 옥고를 치렀으며, 최익현과 임병찬은 대마도에 유배·유폐되었다. 최익현의 의병 투쟁은 한국의병전쟁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한민족의 차후의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 특히 능주(의병장 양희일), 창평(의병장 고광순), 광양(의병장 백낙구), 남원(의병장 양한구) 등의 호남의병이 후기 의병(3차 의병) 투쟁에 나서는 정신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차후의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sup>53)</sup> 1909년 9~10월, 일본군에 의한 남한대토벌작전(호남의병 섬멸·초토화작전)이 전개된 배경에도 이처럼 최익현의 항일의병 투쟁에 대한 당시 일본 침략세력의 악마적 감각과 대응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익현 연구에서는 흔히 위정척사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안의 역적·간흉으로 들었던 자들에 대한 논의가 대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익현의 우리 안의 역적과 우리 밖의 왜적에 대한 구분법은 국가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결함을 드러내는 기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의당 한국근현대사의 논의 과정에서 개화파 지식인들에 대한

51) 김상기 (2006).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 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26-127.

52) 김상기 (2015).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연구, 98, 121. 한국근대의 독립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논의에서 차지하는 최익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旗田綱編 (1987). 朝鮮の近代史と日本 東京: 大和書房 참조.

53) 김상기 (2015).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연구, 98, 121-122.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사실상 일본을 표준으로 삼는 개화만을 꿈꾸었다. 최익현이 사상적으로 시종일관 비판적 논점을 제시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개화기 이래의 개화·자주·문명·부강의 개념은 사전적 개념 규정을 무색케 하는 해석학적 음모가 깔려있다는 것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갑오개혁을 주도했고 개화파 지식인의 대표성을 띠는 존재로 잘 알려진 유길준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유길준은 세계관 자체를 철저하게도 친일본적인 관점을 취하여 삶 그 자체가 일본적 세계관으로 짜여진 인물이었다. 유길준은 전기·중기·후기 의병으로 이어지는 민족 저항의 역사적 궤적에 대해서도 시국을 오해한 오합지졸이라고 매도하였고, 그들의 목숨을 건 독립자존을 위한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이를 경저망동이라고 폄훼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유길준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와 보호정책을 일본의 진의·선의가 발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조선의 내정을 지도하고 외교를 대행하는 일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화파 지식인의 대표성을 띠는 존재였던 유길준은 한국사의 자체 동력, 자주성을 애초부터 몽개고 독립자존과 자주저항의 역사를 지우는 관점을 전개하였다. 유길준은 조선에 대해서는 능멸의 언어를, 일본에 대해서는 추앙의 언어를 구사하였다. 유길준 등의 개화파 지식인들은 한국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학살, 전쟁범죄의 본질을 액면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럴 세계관이나 관점을 애초부터 전혀 갖추지 않았다.

개화파지식인들은 일본 무사들이 주도한 일본의 근대화가 가장 악질적인 침략주의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sup>54)</sup> 한국근현대사의 기술 과정에서 일본에 의한 침략범죄와 학살만행의 본질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전쟁상태가 복류화(伏流化)한 일본의 조선 지배”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5)</sup> 궁궐로 난입하여 왕비를 무참

54) 이상익 (1997).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75.

55) 일제강점기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아시아침략 논리를 개발하고 죽음을 사상적으로 정

히 시해하고도 이를 부인했던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8.20.), 3·1 독립운동에 나선 조선인을 7천 5백여 명이나 학살했던 사건(1919.3.1.), 일본도와 죽창으로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했던 관동대지진 사건(1923.9.1.), 중국 남경을 점령하고 시민 30여만 명을 학살했던 남경학살 사건(1937.12.13.) 등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의 호전성과 야만성과 범죄 지향성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 호전성과 야만성과 범죄 지향성을 감추고 그들은 교육의 이름으로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1911.8.~1922.2.),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1922.2.~1938.3.),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1938.3.~1943.4.),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1943.4.~1945.8.)로 이어지는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쳤다.

한국근대 식민교육사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발전교육론을 설정해놓고 식민지 수탈론과 독립투쟁의 역사와 친일·반민족이라는 배반의 행적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잘못 미끄러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은 몇 년 짜리인가. 50년 전쟁인가, 15년 전쟁인가, 10일 전쟁인가를 묻는 일은 그들의 본색을 확인하는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에 주목하자면, 우리는 응당 최익현은 옳았고 유길준은 틀렸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일본의 힘에 의존하여 문명개화와 근대개혁을 이루겠다는 발상의 근저에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일겠다는 의미 말고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일본에 의한 외교의 대행과 내정의 지도를 받아들이다가 결국 나라의 운명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귀결 말고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었는가. 민족의식을 장착하지 못했던 개화파 지식인들, 그들의 근대지상주의는 나라를 비극으로 빠트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성찰하지 못한다면 근대사 연구를 통해 얻을 수도 있는 역사의

---

당화하는 전쟁협력자의 길을 걷기를 자청했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쟁 상태가 복류화(伏流化)한 일본의 조선 지배” 양상에 대한 심층 논의가 요망된다. 이에 대해서는 姜德相 (2014). 一國史を超えて: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68, 6-23 참조

교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익현의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일본의 기만과 폭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중대한 논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개화파 지식인들의 허술한 세계관과 잘못된 판단력의 문제를 정면 비판하는 작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최익현, 저항의 역사, 우리 안의 역적, 우리 밖의 왜적, 항일의병투쟁

## [참고문헌]

- 고길희 (2005). 하타다 다카시. 서울: 지식산업사.
- 김상기 (2006).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 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26-158.
- 김상기 (2015).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연구, 98, 121-159.
- 박균섭 (2023). 근대수신담론의 발생사 비판. 공존의 인간학, 9, 253-294.
- 박득준 (1995). 조선교육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민영 (2006). 한말 의병의 대마도 피수 경위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59-192.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박학래 (2020). 면암 최익현의 문인 집단 형성과 전개: 『채미연원록』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4, 141-184.
- 이기석 (2022. 10. 29.). *The Independent*를 통해 보는 조선말 한일관계의 이모저모. 한국일본근대화학회 제4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40-255.
- 이병찬·박우훈 (2004). 대마도일기 수창시 연구: 최익현·임병찬·홍주의사 구인의 수창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4, 303-326.
- 이상익 (1997). 서구의 충격과 근대한국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향준 (2022). 노사와 화서의 만남: 박해량의 『해상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145-175.
- 정옥재 (2007). 일제 협력 유림의 유교인식: 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59-85.
- 정중현 (2021). 특별한 형제들: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을 넘나드는 근현대 형제 열전.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 “모두가 의병...” ‘미스터 선사인’이 재조명한 1907년. 중앙일보 2018. 9. 19.
- 최영희 (1979.12.25.). 면암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 姜徳相編 (1966). 現代史資料25 朝鮮 三・一運動. 東京: みすず書房.
- 姜徳相 (2014). 一國史を超えて: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 法政大学大原社會問題研究所彙誌, 668, 6-23.
- 旗田巍 (1969). 日本人の朝鮮観. 東京: 勁草書房.
- 旗田巍編 (1987). 朝鮮の近代史と日本. 東京: 大和書房.
- 『中庸』. (1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勉菴集』.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毅菴集』.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松少集』.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梅泉集』.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聿修齋遺稿』.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국문초록]

최익현의 삶의 궤적은 일본이라는 변수와 역학에 의해 설명되는 특징을 갖는다. 최익현은 우리 밖의 왜적 일본에 대한 응징을 대전제로 하면서 그들의 침탈행위를 용이토록 내통했던 우리 안의 역적에 대해서도 나라를 망친 원수라고 성토하였다. 최익현이 소위 개화파 지식인들을 우리 안의 역적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을 위태롭고 한심한 세력으로 본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일본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과 보호 조약을 맺은 진의는 평화에 있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는 한국에 대한 내정의 지도이자 외교의 대행이라고 둘러댔다. 최익현은 상소와 격문을 통해, 일본에 의존하여 개화, 근대, 개혁을 이루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식민지 전략이라는 귀결 말고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였다. 우리는 근대 지상주의에 민족과 국가가 빠졌을 때, 그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어떤 비극으로 빠트렸는가에 대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위기에 엄혹하게 대응했던 최익현, 일본의 기만과 폭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보여주었던 최익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일의병투쟁이라는 저항의 역사를 명징하게 보여주었던 최익현의 위상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Choi Ik-hyun and Japan**  
- Japanese Government Criticism and Anti-Japanese Righteous  
Army War

Park, Kyoong-S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oi Ik-hyun's life can be explained by the variable of Japan. Choi made punishing Japan, an enemy outside of us, an absolute task. However, he also had a critical point of view on the traitors among us that led to Japan's invasion. Choi identified enlightened intellectuals as our antagonist and defined them as precarious and pathetic forces. Enlightenment intellectuals glorified Japan by using Japan's domination of Korea as a guide to internal affairs and an agent of diplomacy. Choi saw that the idea of Korea relying on Japan to achieve enlightenment, modernity and reform was the seed of misfortune that degenerated into a colony. We must wake up to what tragedy it has plunged the fate of the community into when the nation and state are lost in modern supremacy. At that poin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Choi, who responded harshly to the national crisis, and who showed accurate judgment on Japan's deception and violence. It can be said that Choi's status, which clearly showed the trajectory of resistance to Japan with the anti-Japanese Righteous Army War, occupies an important pag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s]** Choi Ik-hyun, the trajectory of resistance, the traitors in us,  
an enemy outside of us, anti-Japanese Righteous Army War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31일 / 논문심사일: 2023년 12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8일

**[저자연락처]** kspark@knu.ac.kr